

1940년대 ‘皇軍’ 養成을 위한 한일 「國語」교과서

-조선총독부 편찬 제V기 『よみかた』, 『初等國語』와 文部省 편찬 제V기
『よみかた』, 『初等科國語』를 중심으로-

사희영* · 김순전**

sahy420@hanmail.net, sjkim77@jnu.ac.kr

Contents

1. 머리말
2. 1940년대 한일 「國語」의 단원구성
 - 2.1 동일단원의 주제와 문체
3. 1940년대 한일 「國語」의 동일 keyword
 - 3.1 창출된 일본제국의 이미지
 - 3.2 신성불가침의 國體
 - 3.3 일본제국의 皇軍으로 거듭나기
4. 맺음말

Abstract

本研究は朝鮮における近代教育の中で行った日本語教科書の「国語」に関してである。「国語」は国民が共通的に使用する言語を意味するもので、国語教育は国語に対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能力を養うのを意味するのであるが、韓国の近代国語教育は帝国主義の臭いを帯びているといえよう。それは植民地だった朝鮮にての「国語」は朝鮮語でなく、日本語であったからである。1938年日帝の権力によって生活の場においても<国語常用運動>が進められ、支配者の言語である日本語が朝鮮でも強要され、日本語は「国語」として扱われたのである。

1940年代に両国で使用された日本語の教科書のテキストである「国語」はどのような共通点と相違点を持っていたのか。特に太平洋戦争に没頭していた日帝が自国民と植民地の韓国人に対してどのような類似性を顕わしているのか。同時期に同じく教育した朝鮮総督府と日本文部省の日本語のテキスト「国語」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日帝が意図した目的を究明しようと試みた。

その結果、両方の「国語」の共通単元が155で約64%を占めているのが確認できた。これは日本児童に施す教育理念とほぼ同じ教育内容を朝鮮児童にも注入したのを意味する。共通単元をその主題別に分けると、天皇と関連した単元が37個で、戦争を描写した単元も32個で

* 全南大学校 日語日文学科 講師. 한일 근대 비교문학.

** 교신저자, 全南大学校 日語日文学科 教授. 한일 근·현대 비교문학.

あることが分った。また、共通单元をジャンル別に分類すると、詩、報告・観察文、説明・解説文を利用して潜水艦と飛行機などの戦争武器を製造、操作を通して、戦争の美化に利用していた。それに、国力を伸長して世界の中心になっていく強力な日本帝国のイメージを作り上げていくとともに皇室を神格化を図って国体の本義が天皇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結局、1940年代の両国の日本語のテキストであった『国語』は、天皇の臣民、皇軍を養成する装置ばかりでなく、朝鮮児童にも絶えず同じ目的を全うする規制装置であったのが確認できた。

Key Words : 国語、教育、教科書、植民地、日本帝国、天皇、戦争、臣民、兵士
(Kokugo; National language, Education, Textbook for school, Colony, the Japan empire, Tenno, the war, Shimin; people of the public nation, Heishi; soldier)

1. 머리말

‘國語’란 국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國語教育’은 國語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國語教育’은 그 나라 국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의한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근대의 ‘國語教育’은 일제의 식민지라는 특수 상황아래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 한 이후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國語’자리에 배치하였다. 종속적인 식민지어로 전략한 한국어는 1938년 <제3차 교육령>과 국어전해(國語全解) 운동으로 인해 그 자리를 더욱 잃어갔고, 결국 일본어 常用化 정책으로 인해 교과목에서도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지기의 ‘國語’¹⁾는 일본어를 뜻하므로, ‘國語教育’은 ‘日本語教育’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나 조선에서나 ‘國語’로 명명되었던 일본어교육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즉 어떤 유사성(類似性)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식민지하 교육 연구로는 교육제도를 통사적으로 다룬 것²⁾, 식민지 교

1) 윤여탁(2006)『국어교육 100년사 II』서울대학교출판부, pp.223~229 참조.

2) 김봉수(1984)『한국 근대학교 성립이후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교육

육정책에 대한 연구와 교육령 중심의 연구³⁾ 그리고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해 이루어진 민족 민중교육 연구⁴⁾가 대부분이다. 괄목할만한 교과서 연구로는 조선총독부에서 발간된 초등학교 수신서를 원문 및 번역 출판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김순전의 『제국의 식민지수신』을 들 수 있다.⁵⁾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연구한 변성희의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국어교육연구』⁶⁾는 개화기 때의 영웅중심 내용이 천황중심 단원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는 종적인 연구에 머물러 「國語」교과서에 대한 심층적 고찰 연구가 아쉬웠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발행되어 일본에서 사용된 일본의 문부성 발행 「國語」교과서와 조선에서 사용된 조선 총독부 발행 「國語」교과서에 관한 비교연구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같은 언어를 교수함에 있어 종주국과 식민지에서 일본어교육의 내용과 목적을 파악하는데 미흡함을 느꼈다. 동시기에 같은 일본어를 교수한 내지(日本)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내용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교과서의 비교연구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사용된 「國語」 교과서 중에서, 일본이 총력전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식민지인 교육에 힘을 다했던 1940년대 「國語」교과서를 텍스트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다른 기수에 비해 공동단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제가 의도한 교육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과서에 나타난 동일단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일제 말 자국과 식민지에서 이뤄진 일본어교육의 실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텍스트는 조선총독부 발행 제V기 『ヨミカタ』 2권, 『初等國語』 8권과 일본 문부성 발행의 제V기 『ヨミカタ』 4권과 『初等科國語』 8권으로 하였다.

대학 및 박인규(1993)『근대적 초등교원양성제도의 연구』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외 다수.

- 3) 김재우(1987)『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및 박건영(1990)『일제 식민지하의 초등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외 다수.
- 4) 김용수(1990)『일제식민지 교육정책과 민족교육운동 연구』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청구.
- 5) 김순전외 10인(2008)『제국의 식민지수신-조선총독부편찬 <修身書>연구』제이앤씨.
- 6) 이승구·박봉배공저(2001)『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한국교과서 연구재단 / 변성희(1993)『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국어교육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 1940년대 한일 「國語」의 단원 구성

조선총독부 편찬 제V기 「國語」교과서는 1942년부터 1944년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총 12권⁷⁾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문부성 편찬 제V기 「國語」교과서는 1941년부터 1943년도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총 16권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國語』교과서가 『コトバノオケイコ』(一)~(四) 4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단원의 목차가 같은 것으로 보아 『よみかた』(一~四)의 보조적 자료로서 읽기에 말하기를 더하여 일본아동을 학습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말하기를 빼 읽기 교과서만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전시하 몰자부족⁹⁾과 말하기 보다는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에 역점을 둬으로써 식민자의 지배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조선 인상을 목표로 한 일본어교육으로 보인다.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¹⁰⁾ 조선총독부의 「國語」는 총 228단원¹¹⁾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부성의 「國語」는 총 255단원¹²⁾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공통된 단원은 총 155단원으로¹³⁾, 전체 단원의 약 64%를 점유하고 있다.

7) 『よみかた』 一年(上·下), 二年(上·下) 4권과 『初等國語』 三年~六年(上·下) 8권 등 총 12권.

8) 『コトバノオケイコ』(一~四) 4권, 『よみかた』(一~四) 4권, 『初等科國語』(一~八) 8권 등 총 16권.

9) 태평양전쟁 시점에 연합군의 금수(禁輸)로 일본내 물자가 부족해짐에 따라 조선내에서 생산력 확충이 실시됨에 따라 조선내에서도 물자가 격심하게 부족하게 되었고, 조선내에 중소기업이 휴폐업이 속출했는데 인쇄업 종이제조업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1930년대 예술문화운동』 국학자료원, p.206.

10) 다른 시기에 발행된 교과서를 기준으로 볼 경우 一年(上)은 목차가 없이 삽화가 곁들여진 가나(仮名) 입문서로 추정되나 입수하지 못했고, 二(上)도 누락된 상태이며, 『コトバノオケイコ』(一~四)는 『よみかた』(一~四)의 보조적 자료로 쓰여 각 단원의 목차가 같기에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1) 『よみかた』 一年(下) 25단원, 二年(下) 25단원, 『初等國語』 三年(上) 24단원, (下) 24단원, 四年(上) 23단원, (下) 24단원, 五年(上) 20단원, (下) 21단원, 六年(上) 20단원, (下) 22단원 등.

12) 『よみかた』(二) 26단원, (三) 26단원, (四) 25단원 그리고 『初等科國語』(一) 24단원, (二) 24단원, (三) 24단원, (四) 24단원, (五) 20단원, (六) 20단원, (七) 21단원, (八) 21단원 등.

13) 두 교과서명이 다르므로 함께 표기할 때는 알기 쉽게 학년과 학기로 표기. 一年(2) 12단원, 二年(2) 13단원, 三年(1) 16단원, 三年(2) 18단원, 四年(1) 5단원, 四年(2) 18단원, 五年(1) 14단원, 五年(2) 17단원, 六年(1) 17단원, 六年(2) 15단원 등 총 155단원. 필자 작성.

〈표 1〉 조선총독부와 문부성 제V기 「國語」의 동일단원¹⁴⁾

K-V	一年(下) よみかた (1942)	二年(下) よみかた (1942)	三年(上) (1943)	三年(下) (1944)	四年(上) (1943)	四年(下) (1943)	五年(上) (1944)	五年(下) (1944)	六年(上) (1944)	六年(下) (1944)
J-V	よみかた (二)	よみかた (四)	初等科 國語(一)	初等科 國語(二)	初等科 國語(三)	初等科 國語(四)	初等科 國語(五)	初等科 國語(六)	初等科 國語(七)	初等科 國語(八)
1	山ノ上	富士山	天の岩屋	神の劍	朝の海べ	船は帆船よ	大八洲	明治神宮	御旗の影	玉のひびき
2	ウサギトカメ	早鳥	参宮だより	祭に招く	日本武尊	燕はどこへ行く	弟橋媛	水兵の母	永久王	ダバオへ
3	西ハ タヤケ	かぐやひめ	光は空から	村祭	君が代少年	早春の満洲	木会の御料林	姿なき入城	御民われ	太平洋
4	ラジオノコトバ	支那の子ども	支那の春	軍旗	夏	大砲のできるまで	戦地の父から	稲むらの火	敬語の使ひ方	孔子と顔回
5	花サカヂヂイ	おひな様	おたまじゃくし	田道間守	靖国神社	観艦式	ことばと文字	病院船	見わたせば	奈良の四季
6	日本のしるし	北風と南風	八岐のをろち	みかん	光明皇后	くりから谷	海底を行く	月の世界	源氏物語	万葉集
7	お正月	羽衣	夏の午後	潜水艦	苗代のころ	ひよどり越	秋のおとづれ	柿の色	姉	修行者と羅刹
8	オチバ	豆まき	ふなつり	南洋	東郷元師	万寿姫	飛行機の整備	ひとさしの舞	日本海海戦	未広がり
9	カゲエ	白兔	川をくだる	聖徳太子	笛の名人	林の中	軍艦生活の朝	十二月八日	古事記	菊水の流れ
10	コモリウタ	金しくんしゃう	少彦名神	養老	機械	グライダー「日本号」	武士のおもかげ	不深艦の最期	晴れ間	マライを進む
11	兵 タイゴッコ	新年	つりばりの行くへ	ぼくの望遠鏡	浜田弥兵衛	大演習	かんこ島	世界一の織機	雲のさまざま	もののふの情
12	ネズミノヨメイリ	神だな	にいさんの愛馬	菅原道真	千早城	小さな伝令師	遠泳	水師營	山の朝	太陽
13		にいさんの入營	にいぎのみこと	梅	錦の御旗	扇の的	ぼくの小马	元日や	朝顔に	梅が香
14			月と雲	雪舟	とびこみ台	弓流し	星の話	源氏と平家	北千島の漁場	シンガポール陥落の夜

14) 조선총독부의 V기 교과서는 KV로, 문부성의 V기는 JV로 표기한다. 단원명이 약간 상이하지만 같은 내용일 경우 동일단원으로 간주하여 단원명에 밑줄 표기함.

15			軍犬利根	三勇士	秋の空	広瀬中佐		漢字の音と訓	われは海の子	國語の力
16			秋	春の雨		水族館		敵前上陸	ゆかしい心	
17				東京		大阪		ばらの芽	いけ花	
18				映画		防空監視哨				

이상과 같이 전체 단원의 약 64%가 같거나 비슷한 제목과 내용으로 되어있다. 완전히 동일한 교과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자국과 식민지의 사정과 인간적 정서 등의 문제를 고려했겠지만, 절반이 넘는 부분이 같은 단원명과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일본 아동과 조선 아동의 교육이념이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단원과 내용을 통해 일제가 자국과 식민지에서 의도한 공통적 교육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동일단원을 주제별, 문체별로 분류해 보았다.

2.1 동일단원의 주제와 문체

각 단원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색인에 의거해 철학(학문, 윤리), 역사(위인전기전), 지리, 국민, 사회·도덕, 학교, 가정, 전쟁, 자연·과학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조선총독부와 문부성 제V기 『國語』 공통단원의 주제 분류표¹⁵⁾

학년 주제	해당단원										합계
	1-2	2-2	3-1	3-2	4-1	4-2	5-1	5-2	6-1	6-2	
철학	ウサギト カメ,花サ カチヂイ, ネズミノ ヨメイリ	早鳥	川をく だる					稲むら の火		修行者 と羅刹, 末広がり	8

15) 原田種雄·徳山正人(1988)『戦前戦後の教科書比較』株式会社行政, p.53에 의한 국립교육연구소 부속도서관편 『国定読本内容索引(尋常科修身·国語·唱歌篇)』중 『国語件名分類一覽表』 및 『国語件名分類索引』에 기준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역사 · 위인 · 인물		白兔, かぐやひめ, 羽衣	天の岩屋, 八岐のち, 少彦名神, つりばりの行くへ, にぎのみこと	雪舟, 神田守, 徳養原, 道聖子, 菅原道真	日本武尊, 光明皇后, 名田浜, 兵衛早城, 錦旗, 東郷元師	ひよどり越, 扇的, 弓流し, くりから, 谷万寿姫	弟橘媛, 武士おもかげ	ひとさしの舞, と源氏平家	御旗影, 永古事, 源氏物語	孔子と顔回, 万葉集, 菊水の流れ	37
세계 · 지리	西ハ タヤケ	支那の子ども, 富士山	支那の春	東京		大阪, 早春の満洲, 船は帆船よ	海底を行く			太平洋, 奈良の四季	11
국가 · 국민	ラジオノコトバ, 日本ノシルシ		参宮だより		君が代少年, 靖国神社		大八洲, ことばと文字	明治神宮, 漢字の音と訓	御民われ, われは海の子, 敬語の使ひ方	玉のひびき, 国語の力,	14
경제 · 산업				みかん	苗代のころ, 機械		ぼくの馬	柿の色, 世界一の織機	北千島の漁場		7
학교 생활						グライダー「日本号」	遠泳				2
가정 생활	コモリウタ								姉, いけ花		3
전쟁 관련	兵タイゴッコ	金しくしゃん, にいさんの入宮	にいさんの愛馬, 軍犬利根	軍旗, 南洋, 三勇士, 潜水艦, 映画		大砲のできるまで. 観艦式, 大演習, 小さな伝令師, 広瀬中佐, 防空監視哨	戦地の兄から, 飛行機の整備, 軍艦生活の朝	水兵の母, 姿なき入城, 病院船, 不深艦の最期, 水師營, 敵前上陸, 十二月八日	日本海海戦, ゆかしい心,	ダバオマへ, ライを進む, ものの情, シンガポール陥落の夜	32
자연 · 과학		北風と南風	おたまじゃくしの日記, 夏の午後, 月と雲, 秋	ぼくの望遠鏡, 梅, 春の雨	朝の海へ, 夏の空	燕はどこへ行く, 林の中, 水族館	秋のおとづれ, かんこ島, 星の話,	月の世界, 元日や, ばらの芽	見わたせば, 晴れ間, 雲のさまざま, 山の朝, 朝顔に	太陽, 梅が香	27

놀이	オチバ, カゲエ		ふなつ り		とびこみ 台						4
풍속	オ正月, 山ノ上	おひな 様, 神 だ나, 新 年, 豆 まき	光は空 から	祭に招 く, 村祭			木会の 御料林,				10
합계	12 개과	13 개과	16 개과	18 개과	15 개과	18 개과	14 개과	17 개과	17 개과	15 개과	155

가장 많은 단원을 차지한 주제는 역사 및 설화와 관련된 위인과 인물로 3학년부터 6학년에 걸쳐 37단원이다. 고묘황후(光明皇后)를 비롯한 일본의 천황, 무사, 학자 그리고 화가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은 등장시키지 않은 채 일본의 유명한 인물들만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본문화와 일본인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주제는 전쟁과 관련된 32단원이다. 1학년 전쟁놀이를 시작으로 전 학년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갈수록 단원이 많아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전시상황 묘사가 많아진다.

다음으로는 자연·과학에 관련한 주제가 27단원에 걸쳐 나타나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과학 분야를 소재로 하여 기술함으로써 상식적인 자연·과학 분야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국민에 관련된 주제는 14개 단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지리에 관한 주제는 11개 단원으로 일체가 전투중인 곳을 중심으로 전시상황과 더불어 묘사하고 있다. 또 풍속에 관한 주제도 10개 단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풍속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외 철학, 경제, 놀이 등의 주제도 분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아동들에게 중요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은 소수의 단원만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공통되는 단원을 문장 형태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¹⁶⁾

16) 문장 형식의 분류는 原田種雄·徳山正人(1988)『戦前戦後の教科書比較』株式会社行政, p.67의 교과서 분류법을 적용하여 필자가 작성함.

〈표 3〉 조선총독부와 문부성 제V기 「國語」 공통단원 장르 분류표

장르분류		해당 단원	합계
문학적 문장	전기 · 위인	(3-2)田道間守, 聖徳太子, 菅原道真, 雪舟 (4-1)東郷元師, 笛の名人, 浜田弥兵衛, 千早城, 錦の御旗, 光明皇后 (4-2)くりから谷, ひよどり越. 万寿姫, 扇的的. 弓流し (5-1)武士のおもかげ (5-2)ひとさしの舞. 源氏と平家 (6-1)永久王. 御旗の影. 古事記. (6-2)孔子と顔回. 菊水の流れ	23
	전설 · 동화	(1-2)ウサギトカメ, 花サカヂヂイ, ネズミノ ヨメイリ (2-2)早鳥, かぐやひめ, 羽衣 (3-2)養老 (6-2)末広がり (6-2)修行者と羅刹	9
	신화	(2-2)白兎 (3-1) 天の岩屋, 八岐のをろち, 少彦名神, つりばりの行くへ, ににぎのみこと (3-2)神の劔 (4-1)日本武尊 (5-1)弟橘媛	9
	서경· 기행· 수필	(1-2)山ノ上, (3-1)支那の春 (4-2)早春の満洲 (5-1)秋のおとづれ	4
	허구 상상문	(2-2)北風と 南風	1
	시	(1-2)ラジオノ コトバ, 日本ノ シルシ, オ正月, コモリウタ (2-2)富士山, おひな様, 金しくんしゃう, 新年 (3-1)光は空から, 秋 (3-2)村祭, 軍旗, 映画, 梅 (4-1)朝の海へ, 夏, 靖国神社, 機械, 秋の空 (4-2)広瀬中佐, 船は帆船よ, 観艦式, 林の中, 防空監視哨 (5-1)大八洲, 海底を行く, かんこ島 (5-2)姿なき入城, (6-1)われは海の子 (6-2)シンガポール陥落, 太平洋	31
	와카· 하이쿠	(5-2)元日や, ばらの芽 (6-1)見わたせば, 晴れ間, 朝顔に (6-2)玉のひびき, 梅が香	7
설명문	설명· 해설	(3-1)軍犬利根 (3-2) みかん, 東京 (4-1)苗代のころ (4-2)燕はどこへ行く, 大砲のできるまで, 大演習, 大阪 (5-1)木会の御料林, ことばと文字, 飛行機の整備, 星の話 (5-2)明治神宮, 稲むらの火, 柿の色, 世界一の織機, 漢字の音と訓 (6-1) 敬語の使ひ方, 御民われ, 雲のさまざま, 源氏物語 (6-2)奈良, 万葉集, 太陽, 国語の力	25
	보고· 관찰	(2-2)支那の 子ども, にいさんの 入営 (3-1)おたまじゃくしの日記, にいさんの 愛馬 (3-2)ぼくの望遠鏡, 三勇士, 春の雨 (4-2)君が代少年, とびこみ台, 小さな 伝令師, 水族館 (5-1)軍艦生活の朝, 遠泳, ぼくの小馬 (5-2) 水兵の母, 月の世界, 不深艦の最期, 水師營, 敵前上陸 (6-1)日本海海戦, 山の朝, 北千島の漁場, ゆかしい心 (6-2)ダバオへ, マライを進む, ものふの情	26
생활문	서간· 일기· 대화	(1-2)カゲエ (3-1)参宮だより, 川をくだる (3-2)祭に招く, 南洋, 潜水艦 (5-1)戦地の兄から (5-2) 病院船, (6-1)いけ花	9
	생활문	(1-2) 兵タイゴッコ, 西ハ タヤケ, オチバ (2-2)豆まき, 神だな (3-1)夏の午後, ふなつり, 月と雲 (4-2)グライダー「日本号」 (5-2) 十二月八日, (6-1)姉	11

주제 외에 문학형식으로 공통되는 단원을 구분하여 보면, 가장 많은 단원을 차지한 장르는 <시> 부문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걸쳐 31단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하여 압축된 함축성 있는 단어를 사용하

여 의식 깊숙이 각인 시키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표현방법과 언어의 리듬감을 살린 운율로 아동들에게 친숙함을 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폭시키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문장 형태로는 <보고·관찰문>이 배치되어있다. 보고문 형식에 가장 많이 응용된 것은 전쟁관련 주제이다. 보고문이 객관성과 정확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문 형식을 빌려 과장되고 격앙된 어조로 서사함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일본군을 미화하여, 읽는 아동들로 하여금 미래에 천황을 위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점유한 문장형식은 <설명·해설문>으로, 1·2학년인 저학년에는 나타나지 않고 3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러 25단원이나 집중 배치되어 있다.

<전기·위인전> 형식의 문장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3단원이 서술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의 생활을 그려낸 생활문은 주변생활을 쉽게 서술한 때문인지 1, 2, 3학년을 중심으로 11단원이 실려 있다.

<서간·일기·대화문>은 9개 단원으로 3학년에 치중되어 있으며, <전설과 동화>는 익숙한 이야기들을 실어 아동들로 하여금 텍스트에 친숙함을 느끼도록 설정해 놓고 있다.

<와카·하이쿠>는 계어(季語)와 기레지(切字)같은 형식적 제약과 고어의 사용 때문인지 고학년인 5·6학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서경·기행·수필>로는 중국이나 만주의 풍경을 묘사하여 일본군의 위상을 암시하는 묘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허구 상상문>은 계절에 따른 바람의 변화를 힘겨루기로 묘사한 『북풍과 남풍(北風と南風)』<KV-2-2-24>, <JV-2-2-24>이 있을 뿐이다.

일본과 조선의 『國語』 공통단원은 황국신민으로서의 마음가짐, 행동강령 등을 다양한 형식을 이용해 교화시키고 있으며, 천황찬미와 전쟁미화 담론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940년대 한일 「國語」의 동일 keyword

3.1. 창출된 일본제국의 이미지

서구문명을 일찍 받아들이고 정착시킨 일본은 내적으로 인민(人民) 개개인을 결속시켜 국민(國民)을 탄생시켰고, 외적으로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의 지배를 위해 일본제국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만들어진 제국의 이미지를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교과서에 담아 주입시켜나갔다.

1940년대에 간행된 「國語」의 공통단원으로, ‘일장기(日の丸)’, ‘후지산’, ‘기미가 요(君方代)’ 등에 일본제국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년 「일본의 상징(日本ノシルシ)」<KV-1-2-19>, <JV-1-2-20>에서는 학교를 갓 입학한 1학년 아동에게 자신이 속한 국가 ‘일본의 상징’이라는 시로서 짧고 함축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상징인 깃발이 있다. 아침 해를 넣은 일장기. 일본의 상징인 산이 있다. 모습도 훌륭한 후지산. 일본의 상징인 노래가 있다. 고마운 노래 기미가요.¹⁷⁾ 『일본의 상징(日本ノシルシ)」<KV-1-1-12> <JV-1-1-20>¹⁸⁾

떠오르는 아침 해에 비유한 일장기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본을 암시하고 있으며, 멋진 모습으로 비유한 후지산은 훌륭한 일본을, 고마운 노래로 나타낸 기미가요는 일본의 대표인 천황의 이미지로 부각시켜 상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어린 아동들에게 일본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 「후지산(富士山)」<KV-2-2-7>, <JV-2-2-1>에서는 시로 일본의 아름다운 후지산을 읊고 있으며, 후지산의 소나무 벌판을 태평양의 물결에 비유하고 있다. 후지산을 부드럽

17) 『國語』 교과서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 이하 동.

18) 이후 학년중심으로 분류하여 『よみかた』 一年(下)과 『よみかた』(二)는 1-2(1학년 2학기를 의미함), 『よみかた』 二年(下)과 『よみかた』(四)는 2-2, 『初等國語』 三年(上)과 『初等科國語』(一)는 3-1, 『初等國語』 三年(下)과 『初等科國語』(二)는 3-2, 표기하기로 한다. 『初等國語』 四年(上)과 『初等科國語』(三)는 4-1, 『初等國語』 四年(下)과 『初等科國語』(四)는 4-2, 『初等國語』 五年(上)과 『初等科國語』(五)는 5-1, 『初等國語』 五年(下)과 『初等科國語』(六)는 5-2, 『初等國語』 六年(上)과 『初等科國語』(七)는 6-1, 『初等國語』 六年(下)과 『初等科國語』(八)는 6-2로 표기하기로 한다.

고 용감한데다 존엄함까지 띠는 신령한 산 즉 에니미즘적으로 표현하여 일본인의 인성(人性)과 똑 같다는 암시로, 세계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본제국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제국의 이미지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일본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글라이더 일본호(グライダー日本號)』<KV-4-2-12>, <JV-4-2-10>에서는 글라이더를 만드는 과정과 만든 글라이더를 날리는 모습까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반 급우들이 만든 글라이더를 운동장 건너편 벼랑에서 날려 그중 가장 멀리 날아간 글라이더를 ‘일본호’라 명명함으로써 최고의 자리에 일본을 위치시키고 있다. 또 『해저를 가다(海底を行く)』<KV-5-1-15>, <JV-5-1-16>에서는 혼슈(本州)와 규슈(九州)사이 해저터널이 완공된 것을 시의 형식을 빌려 일본 기술의 우수함을 과시하고 있으며, 『세계 제일의 직기(世界一の織機)』<KV-5-2-11>, <JV-5-2-11>에서는 온갖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연구에 전념해 세계 제일의 직기를 만들어낸 사키치(佐吉)의 인내를 ‘애국심’으로 에스컬레이트업하여 개인의 취향을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로 승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국(大八洲)』<KV-5-1-1>, <JV-5-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을 서술하고 있다.

이 나라를 신이 만드시고, 이 나라를 신이 다스리며, 이 나라를 신이 지켜주십니다. (중략) 엄숙히 동해에 있다. 해가 뜨는 나라이며, 해의 근원으로 칭송한다. (중략) 평화로운 태평함으로 천지와 함께 끝이 없다. 정교한 무기로 충분히 준비된 나라. 『일본국(大八洲)』<KV-5-1-1>, <JV-5-1-1>

위와 같이 ‘일본’의 다른 여러 미칭을 사용하며 신이 만들어 보호해주는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진, “해의 근원”인 세상의 중심이 되는,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전투력으로 무장된 튼튼한 국가임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아이들(支那の子ども)』<KV-2-2-12>, <JV-2-2-16>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병사에게 친절한 태도와 중국아이들이 일본 창가를 부르며 일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그려, 일본을 종주국으로 인지하여 일본인에게 친절

한 중국 사람들을 통해 세계로부터 환영받는 일본제국의 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창출하고 있다.

갑자기 한 아이가 큰 소리로 “파란 하늘 높이 일장기를 올려라”하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따라 아이들은 모두 다함께 노래하였다. “파란하늘 높이 일장기를 올려라, 아 아름다워라, 일본의 깃발은” 『중국의 아이들(支那の子ども)』<KV-2-2-12>, <JV-2-2-22>

또 『도쿄』<KV-3-2-23>, <JV-3-2-24>에서는 14페이지에 걸쳐 무사시노(武蔵野)를 비롯한 변화한 일본 수도 이곳저곳을 소개하고 있으며, 4학년 2학기에는 오사카(大阪)에 대해 상술했으므로 친근한 일본 만들기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비는 어디로 가나(燕はどこへ行く)』<KV-4-2-2>, <JV-4-2-2>에서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철새인 제비를 설명하면서도 국가와 연관시켜 서술하고 있다.

그 작은 몸으로 긴 여행을 계속한 때문인지 도중에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제비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오스트리아까지는 만 킬로 이상 되지만, 제비는 결코 자신의 나라를 잊지 않습니다. 일본에 봄이 찾아오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북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가슴에는 새잎이 무성한 일본 봄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것이겠지요. 파랗디 파랗게 심어진 여름 논을 떠올리는 것이겠지요. 『제비는 어디로 가나(燕はどこへ行く)』<KV-4-2-2>, <JV-4-2-2>

철새가 이동하는 생태계의 현상조차도 “일본 봄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의 귀소본능을 이용하여 세계 속에 일본은 본향이며 고국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나랏말과 관련해서, 『라디오의 언어(ラジオノコトバ)』<KV-1-2-7>, <JV-1-2-4>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본어는 바르고 아름다운 말로, 만주나 중국을 비롯해 세계에 울려 퍼진다고 하여, 국력이 신장되어 세계로 뻗어가

는 강력한 일본의 이미지를 새겨 넣고 있다. 또 『경어 사용법(敬語の使い方)』 <KV-6-1-3>, <JV-6-1-4>에서는 경어사용 의미와 방법을,

문화가 발달한 나라, 교양이 높은 국민에게 있어서 예의를 중시하고 언어 사용을 정중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우리 국어에는 경어라는 것이 있어, 그 사용법이 특별히 발달해 있어서 (중략) 경어 사용법에 의해 존경이나 겸손의 마음을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실로 우리 국어의 큰 특색이고, 세계 각국 언어에서 그 예를 볼 수 없는 것이다. 『경어 사용법(敬語の使い方)』<KV-6-1-3>, <JV-6-1-4>

라고 서술하여, 경어를 사용하는 일본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진된 민족으로, 최상의 언어인 일본어를 ‘國語’로 사용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선민의식을 확인시키고 있다.

『국어의 힘(國語の力)』<KV-6-2-21>, <JV-6-2-20>에서는 만세일계의 천황을 모시고 뛰어난 국체를 완성한 오늘이 있기까지 ‘國語’가 이어져 왔음을 서술하며 선조의 정신과 얼이 담겨있는 ‘國語’를 존중하고 사랑하자고 교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가(國歌)를 봉창하는 때 우리 일본인은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바로하고 영예로우신 우리 황실의 만세를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이 국가에 읊어진 언어도 바로 國語인 것이다. (중략) 국가와 국민은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國語를 잊은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고까지 한다. 國語를 존중하라. 國語를 사랑하라. 國語야말로 국민의 혼이 깃든 것이다. 『국어의 힘(國語の力)』<KV-6-2-21>, <JV-6-2-20>

윗글은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로서 국토와 국민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소통의 기본인 언어 즉 國語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國語를 연관 지음으로써 국가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3.2. 신성불가침의 國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민족국가를 만드는데 그 핵심이 필요했던 근대일본은

밀려오는 외래사상과 세력에 대해 국가와 민족의 분열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천황을 선택하였다. 일본은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변혁을 거쳐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가족국가형태로 근대화를 이루어 갔다. 천황을 국가의 중심핵으로 놓고 현인신(現人神)으로 추앙하며 일본의 국체로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자리매김하기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40년대 「國語」교과서에서도 많이 나타난다.¹⁹⁾ 공통되는 2학년 2학기에서는 「흰 토끼(白兎)」의 고사기(古事記) 설화를 비롯하여,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 야마타노오로치(八岐のおろち), 천손장림의 니기노미코토(ににぎのみこと)와 그의 아들인 호데리(ほでり)와 호오리(ほおり)의 설화를 수록해 놓았다. 그리고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스쿠나히코나노카미(小彦名神)등으로 채워 놓고, 고대부터 연결된 천황가의 설명과 함께 천황의 신격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가히사오(永久王)」<KV-6-1-1>, <JV-6-1-2>에서는 나가히사가 육군 포병학교와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만주 주몽군(駐蒙軍) 참모로 부임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에피소드를 엮고 있다. 효심이 지극하고, 자신보다 국민을 염려하며 몽고 주민들까지 돌보아 주었고, 직접 전황(戰況)을 정찰하고 작전지휘를 통해 군인들에게 용기를 준 일화를 묘사하여 일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천황가를 서사, 천황가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요로(養老)」<KV-3-2-12>, <JV-3-2-11>에서는 나이든 아버지에게 효행하는 아이를 보고 감탄한 천황이 연호를 '요로'로 바꾸었다는 일화로, 신격화와 자상함을 오버랩시켜 가족국가의 가장(家長)이기도 한 천황의 이미지를 아동 때부터 주입시키고 있다.

한편 천황에 이어 황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고묘황후(光明皇后)」<KV-4-1-6>, <JV-4-1-6>에서는 쇼무(聖武) 천황의 황후인 고묘황후에 얽힌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 イヨンスク(1996)『「国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pp.231~234를 살펴보면 식민지 아동으로서 충군애국관념을 왕성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천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고묘황후는 이 약탕에도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시중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천 번째 병자의 수발을 들어주셨을 때 갑자기 병자 몸에서 광채가 비치면서 근처가 금색으로 구석까지 반짝였다고 합니다. 『고묘황후(光明皇后)』<KV-4-1-6>, <JV-4-1-6>

이처럼 천황뿐만 아니라 황후까지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미화시킴으로써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황후의 이미지로 묘사하여 가족국가 구축의 틀을 굳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학년 1학기에서는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 지하야성(千早城) 전투에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고 전쟁에서 자결한 무사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다이토노미야(大塔宮)에게 충성한 히코시로 요시테루(彦四郎義光)등 천황에게 충성한 무사들을 모범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기소 요시나카(木曾義仲)와 다이라노코레모리(平維盛)와의 전투, 헤이케(平家)와 겐지(源氏)家的 전투 등을 담고 있으며, 오토다치바나히메(弟橘媛)가 다케루노미코토(武尊)를 위해 바다에 몸을 바쳐 海神을 진정시켜 皇軍을 구했다고 서술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으로 천황을 국체로 제시하고 충군애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지마모리(田道間守)』<KV-3-2-5>, <JV-3-2-5>에서는 조선에서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의 자손인 다지마모리가 스이닌(垂仁)천황의 명을 받아 외국에 굴을 찾아 나선지 십년만에 겨우 찾아내어 일본에 돌아오지만 천황은 이미 죽은 후로, 다지마모리는 굴을 가지고 천황의 묘에 가져다 바치고 슬피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다지마모리는 옛날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충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한없이 울다가 다지마모리는 천황의 묘 앞에 엎드린 채로 어느새 차갑게 되어있었습니다. 『다지마모리(田道間守)』<KV-3-2-5>, <JV-3-2-5>

이 글을 통해 일본 아동에게는 조선인조차 일본천황에 충성한다는 국체보존의 애국심을 심어주고 있고, 조선 아동에게는 선조들의 충의를 본보기로 보임으

로써 일본천황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개념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기미가요 소년(君が代少年)」〈KV-4-1-4〉, 〈JV-4-1-4〉에서는 일본 소년이 아닌 대만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지진이 발생해 무너진 건물 기왓장에 깔려 큰 상처를 입은 소년이 고통 속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한 것을 서사하여 본받아야 할 모범아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고통스런 치료 속에서도 소년은 결코 대만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
니다. 일본인은 ‘國語(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도쿠콘(德坤)은 아무리 불편해도 ‘國語’를 끝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중략) “아버지, 제가 기미가요(君が代)를 부르겠어요” 소년은 잠깐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 듯 하였으나 드디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노래를 마쳤습니다. 기미가요를 다 부른 도쿠콘은 그날 아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로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긴 잠에 빠졌습니다. 「기미가요 소년(君が代少年)」〈KV-4-1-4〉, 〈JV-4-1-4〉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죽는 순간까지 기미가요를 부르는 대만 소년을 통해 조선아동에게도 학교에서 배운 데로 황국신민으로서 죽는 순간까지 충성할 것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과 조선만이 하나가 아니고 일본어로 천황을 찬양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대만도 같은 일본의 조직에 넣어, 이를 확장한 것이 대동아공영권의 동일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천황에 대한 묘사는 「國語」교과서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데, 「신년(新年)」〈KV-2-2-14〉, 〈JV-2-2-13〉에서는 신년을 맞아 왕실의 조상이나 신을 모신 신사에 가는 모습이나, 천황을 칭송하는 기미가요를 부르며 축하하는 모습을 서사함으로써 일상에서 항상 함께 존재하는 천황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 「신사참배소식(參宮だより)」〈KV-2-2-14〉, 〈JV-2-2-13〉에서는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진무천황을 제신으로 섬기는 가시와라(檜原)신궁을 참배하러 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메이지신궁(明治神宮)」〈KV-5-2-1〉, 〈JV-5-2-1〉에서는 메이지 신궁의 구조와 정경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신궁참배모습을 반복 기술하는 것을 통해 참배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뛰라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과 “정말로 성스러워서 자연히 머리가 숙여

지는” 곳으로 표현하여, 아동들에게 천황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존엄성을 새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경어 사용법(敬語の使い方)』<KV-6-1-3>, <JV-6-1-4>에서는 경어사용 의미와 방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고대부터 우리 국민은 황실을 중심으로 해 지성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최상의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중략) 우리 ‘國語’에 경어가 이 정도로 발달한 것은 즉 우리나라 국체의 존엄함과 옛날부터 내려온 미풍이 언어에 반영된 것이다. 『경어 사용법(敬語の使い方)』<KV-6-1-3>, <JV-6-1-4>

천황에게 충성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경어가 사용되었다며, 경어를 황실과 연관하여 언급하면서 천황은 곧 존엄한 국체임을 역설하고 있다. 1937년 3월 『국체의 본의(國體の本義)』라는 책이 문부성에서 편찬되어 발간되기도 한다. <國民精神文化> 연구소 교수 기히라 다다요시(紀平 正美)의 강연을 살펴보면 “국체라는 것은 우리들 일본인의 신념속에 있는 것이며, 지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²⁰ 합리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국체를 경어와 연관지어 ‘존엄함’과 ‘미풍’이라는 용어로 미화하며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천황에 대한 찬미는 천황에 대한 일화에서 문학작품으로도 확장되는데, 『만엽집(萬葉集)』<KV-6-2-11>, <JV-6-2-6>에서는 천황에 대한 충의의 의지를 읊은 와카(和歌)를 인용하고 있다.

“바다로 진군하면, 물에 잠기는 죽음이 되어라, 산으로 진군하면 풀이 무성한 죽음이 되어라. 대군의 곁에서 죽으면 이 몸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의미로 정말로 용감한 정신을 전하고, 충용의 마음이 흘러넘친다. 만엽집의 시에는 이런 국민적 감격이 차고 넘치는 것이 많다. 『만엽집(萬葉集)』<KV-6-2-11>, <JV-6-2-6>

충의의 마음을 읊은 와카를 소개하여, 건국 이래 일본을 통치해온 황통에 대한 ‘忠’의 불변성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민 우리들(御民われ)』<K

20) 와카쓰키 야스오著·김광식訳(1996)『일본 군국주의를 벗긴다』화산문화, p.285 재인용.

V-6-1-20>, <JV-6-1-21>에서도 천황의 신민(臣民)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사는 보람을 느낀다는 글로 시작하여 충의를 나타내는 충신들의 와카들로 위엄으로써 천황에 대한 충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과인 『국어의 힘(國語の力)』<KV-6-2-21>, <JV-6-2-20>에서는 “국가(國歌)를 부를 때 황실 만세를 마음속으로 기원한다”거나, “우리나라는 신대(神代)이후 만세일게 천황을 모셔, 세계에서 비길 데 없는 국체(國體)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국어(일본어)의 설명과 곁들여,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체인 천황과의 연결고리로 관계 짓고 있다. 고대로부터 현재 또 조선성인에서부터 대만아동에 이르기까지 시공간(時空間)을 초월한 충성을 제시하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귀결하고 있다.

3.3. 일본제국의 ‘皇軍誕生’

1930년대 일본에서 이뤄진 천황의 지위 문제에 대한 언급²¹⁾중 당시 육군대장 혼조 시게루(本庄繁)의 발언을 살펴보면 왜 ‘皇國軍人’을 양성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군에서는 천황을 살아 있는 신으로 믿고 있으며, 이것을 기관설로 인간처럼 취급한다면 군대교육과 군 통수에 있어 매우 어렵습니다.²²⁾

인간이 내린 명령이라면 비판이나 저항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인간이 아닌 신격화된 천황의 명령에 절대복종케 함으로써 일본군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 일본은 물론 조선의 물자와 인력까지 총동원체제로 전력화하게 된다. 이러한 전시상황에 따라 아동을 가르치는 1940년대 『國語』 교과서에도 皇國軍인에 관한 내용과, 전쟁 관련 내용을 많이 삽입하여 전장에서 필요한 전투인력 양성²³⁾을 위한 초등교육을 시도

21) 일본국가는 법인이고, 천황은 그 최고 기관이라고 보는 ‘천황기관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체를 파괴하는 학설’로서 탄핵되어지고 만다. 가라타니 코오진외(2002)『근대 일본의 비평』소명출판, p.169 참조.

22) 와카쓰키 야스오著 · 김광식訳(1996)『일본 군국주의를 벗긴다』화산문화, p.158 인용

23) 이계학외(2004)『근대와 교육 사이의 파열음』아이필드, pp.29~32 참조.

했던 것이다.

중일전쟁 이후 『國語』 교과서의 1학년 아동들에게, 재밌는 놀이로서 전쟁을 접목시키고 있다. 『병사놀이(兵タイゴッコ)』<KV-1-2-12>, <JV-1-2-16>에서 놀이를 통해 보병, 기병, 포병, 공병, 전차병, 항공병, 수송병, 간호병 등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면서, 미래 전쟁에 참여할 병사로서의 역할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대를 익히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전쟁찬미로, 『말레이 진군(マライを進む)』<KV-6-2-15>, <JV-6-2-13>에서는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용감하게 지뢰제거작업을 하는 일본 공병부대의 활약상을 묘사하고 있다. 또 시의 형식을 이용하여 싱가포르를 함락, 미얀마에 진군, 지뢰가 터지는 적진에 용감하게 돌진하는 등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황군’을 찬양을 하고 있다. 『일본해 해전(日本海海戰)』<KV-6-1-7>, <JV-6-1-8>에서는 일본군이 러시아군과 맞붙은 해전에서 승리하는 천황의 연합함대를 자랑스레 서술하고 있다.

한편 『12월 8일(十二月八日)』<KV-5-2-7>, <JV-5-2-9>에서는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의 연유와 함께 자랑스러운 황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등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억지를 부리려하는 미국 또 영국에 대해서 일본은 과감하게 나선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벌써 예전부터 각오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중략) 그렇다 우리들 국민은 천황폐하의 대명령을 받들어 모시고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일에 급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용감한 황군은 물론 국민전체가 하나의 불덩어리가 되어 나아갈 때인 것이다. 우리들 소국민도 이 영광스런 커다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중략) 나는 오늘 정말로 일본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다. 『12월 8일(十二月八日)』<KV-5-2-7>, <JV-5-2-9>

미국이 일본의 중국에서의 철수를 요구하며 전쟁에 필요한 철·석유·고무 등의 일본유입을 차단하여 일으킨 전쟁을,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발한 전쟁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게다가 어린 아동들에게도 일본의 소국민으로서 천황의 명령에 따라 영광스런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가라앉지 않는 함대의 최후(不沈艦の最期)」〈KV-5-2-7〉, 〈JV-5-2-9〉에서는 영국의 무적함대로 알려진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함대들과 만나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15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특히 출정하는 군인들이 “죽어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고별사를 한 일본군이 뇌격기와 함께 적의 함대로 정면충돌하여 자폭하는 장면들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황군을 영웅화하여, 아무리 무적함대라 할지라도 황군 앞에서는 전멸한다는 영웅화된 황군의 이미지를 아동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수사영(水師營)」〈KV-5-2-12〉, 〈JV-5-2-12〉 또한 15페이지에 걸쳐 일본군이 여순(旅順)을 점령한 후 이뤄진 러시아군 사령관과 일본군 노기(乃木) 대장과의 회견장에서의 대화를 그려내고 있다. 이 단원에서도 적군인 러시아 사령관이 일본 천황에게 감사해하거나 일본 병사를 칭송하는 언사, 노기 대장에게 말을 헌사하는 장면 그리고 러시아군 전사자들의 사후처리 등을 통해 존경 받는 황군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어린 아동들에게 황군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삼용사(三勇士)」〈KV-3-2-21〉, 〈JV-3-2-21〉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철조망을 뚫고 적군을 섬멸한 공병(工兵)을 소개하여, 죽음을 불사한 병사들을 영웅화하여 아동들에게 ‘병사가 되고 싶다’는 굴절된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심어주고 있다.

한편 아동들에게 친숙함을 주기 위해 가족 중에서도 가장 연령대가 가까우면서도 의지가 되는 형을 화자로 설정하여, 「전쟁터의 형에게서(戰地の兄から)」〈KV-5-1-4〉, 〈JV-5-1-4〉는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는 형에게서 온 서간문 형식으로, 가족들의 안부와 더불어 황군으로서 천황에게 충성하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들은 얼마나 고마운 나라에 태어난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 천황폐하의 은혜를 위해 전선(戰線)도 후방도 하나가 되어 고마운 그 마음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략) 주민들은 한사람도 남김없이 고마운 황실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에서부터 일본군이 되어 대동아건설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희들은 모두 형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전쟁터의 형에게서(戰地の

兄から)』〈KV-5-1-4〉, 〈JV-5-1-4〉

일본에 태어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피력하면서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인뿐만이 아닌 필리핀 주민들까지 대동 아건설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어린 아동들에게도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입영하여 참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 「형의 입영(にいさんの入営)」〈KV-2-2-16〉, 〈JV-2-2-15〉에서는 형의 입영을 통해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축하받을 일이며, 멋진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으므로, 장차 군인으로 전쟁터에 출전할 마음의 준비를 시킴과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미화시키고 있다.

한편 「금치훈장(金しくんしょう)」〈KV-2-2-18〉, 〈JV-2-2-20〉에서는 전쟁에 참가 한 후 얻어지는 결과물로서 천황이 하사하는 금빛 솔개모양의 훈장을 시로써 찬양하고 있다.

군인들의 가슴에는 금치훈장으로 가득합니다. 꽃 같은 훈장. 해처럼 둥근 훈장. 금 솔개의 금치 훈장. 옛날 진무천황의 활에 앉았던 그 금빛 솔개가, 지금 군인들의 가슴에 빛나며, 훌륭한 공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치훈장(金しくんしょう)」〈KV-2-2-18〉, 〈JV-2-2-20〉

함축적 의미가 담긴 시의 형식을 이용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공적을 세우면 천황으로부터 금치훈장을 받을 수 있다는 꿈을 어린 아동들에게 심어주어 군인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무사의 정(もののふの情)」〈KV-6-2-17〉, 〈JV-6-2-16〉에서는 침몰해가는 그리스 상선의 국기에 대해 예를 갖추고, 적의 병원선을 공격하지 않으며, 야전병원에서 부상당한 미군병사를 돌보는 일본 병사의 젠틀한 모습을 무사도와 연결시켜 미화시키고 있다. 특히 부상당한 미군병사와의 대화에서는

“나는 지금의 내 입장을 슬퍼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표해준 친절과 동지로서 우정의 따스함이 마음속 깊이 느껴져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은 미국군대에는 결코 없습니다. 나는 일본군대가 정말로 부럽습니다.” 「무사의 정(もののふの情)」〈KV-6-2-17〉, 〈JV-6-2-16〉

라고 서사하여 적군인 미군조차도 황군을 칭찬하는 장면을 통해 충(忠), 의(義), 용(勇), 인(仁), 예(禮), 성(誠)을 근간으로 한 무사도를 완성하는 황국군인을 완벽하게 미화하고 있다.

한편 「품위있는 마음(ゆかしい心)」〈KV-6-1-17〉, 〈JV-6-1-18〉에서는 태평양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군함 함장이 일본 해군의 눈부신 전투 활약과 더불어 잠두콩을 나눠먹는 전우애, 병사가 고양이를 돌봐주는 동물애호, 병사가 꽃을 사랑하는 식물애, 병사가 대기하는 동안 하이쿠를 짓는 문학애 등을 소개하며 용맹하면서도 품위 있는 황국군을 형상화하고 있다.

황군찬양은 인간만이 아닌 생물체를 통해서 애니미즘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군견도네(軍犬利根)」〈KV-3-1-22〉, 〈JV-3-1-22〉에서는 아야코(文子)가, 어미개가 군견인 강아지를 얻어와 키워서 군견으로 보내는, 즉 부모에게 임시로 맡겨진 아동이 성장한 후에 황군으로 되돌아가는 암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네가 훈련을 받고 군견 반에 들어간 후, 상처를 불사하며 적의 진지를 뚫고 목에 넣은 통신을 전달하여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 스토리로 서사하고 있다. 또 「작은 전령사(小さな傳令使)」〈KV-4-2-14〉, 〈JV-4-2-12〉에서는 비둘기가 통신병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리와 배에 총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죽은 스토리이다. 또한 입영한 형이 군마를 돌보는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하찮은 동물들도 전쟁에 참여하여 제 몫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아동들에게 충성심을 종용하고 있으며,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군기(軍旗)」〈KV-3-2-14〉, 〈JV-3-2-14〉에서는 군기에 대한 느낌을 시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군기- 군기. 천황폐하께서 손수 하사해주신 소중한 군기. 우리육군의 징표 군기.
군기- 군기. 천황폐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나라를 지킨다. 우리육군의 생

명 군기. 군기- 군기. 천황폐하 어전에 죽을 각오로 적지에 나아간다. 우리 육군의 영광 군기. 군기- 군기 천황폐하의 전투에, 언제라도 이겨서 공을 세운다. 우리 육군의 명예로운 군기. 『군기(軍旗)』<KV-3-2-14>, <JV-3-2-14>

천황의 군대로서 천황이 하사한 군기를 들고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하는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천황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을 피력하며, 천황의 군인이라는 ‘황군’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전쟁터에서의 황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각종 무기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군인에게 필수인 무기에 대한 관심을 자극시키고 있다. 특히 『대포가 만들어질 때까지(大砲のできるまで)』<KV-4-2-21>, <JV-4-2-19>에서는 대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행기를 쏘아 떨어뜨리는 고사포, 전차의 두꺼운 강철판을 쏘아 뚫어 관통하는 대전차포, 말이나 견인차로 끌고 가는 야포나 중포-이러한 여러 가지 대포는 어떻게 해서 제조되는 것일까요? 『대포가 만들어질 때까지(大砲のできるまで)』<KV-4-2-21>, <JV-4-2-1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아동들에게 대포의 종류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러한 대포들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그것을 어린 아동들이 더위나 추위를 이겨내고 몸과 마음을 닦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여러 가지 대포가 만들어져 일본을 지켜주게 된다고 무력의 힘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수병의 어머니(水兵の母)』<KV-5-2-2>, <JV-5-2-2>에서는 해병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목숨을 아까워 말고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소개함으로써 황군의 어머니가 취해야 할 마음가짐 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아동을 교육시키는 『國語』교과서에, 전쟁터를 배경으로 하여 활약을 펼치고 있는 천황의 군인들을 전투상황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서사했다. 그리고 결국 무사도와 연결하여 완벽한 황군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근대일본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법이나 제도로 억누르는 것 보다 그러한 사상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근대 국민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의 균질교육을 통해 일본국민과 식민지 조선인을 세뇌시켜 황국국민을 양성하려고 하였다. 특히 아동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 『國語』에서도 황국군인 양성의 장치로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제V기 『國語』 교과서를 살펴보면, 1941년부터 발행된 문부성 『國語』 교과서를 참조하여 조선총독부 『國語』 교과서가 1년의 차이를 두고 발행되었는데, 조선의 일본어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에서 말하기를 뺀 『國語』교과서를 편찬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보다 식민자의 통치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일본어 이해, 특히 듣기 능력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와 문부성 제V기 『國語』 교과서의 공통된 단원은 155단원(64%)으로, 공통단원을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 천황과 관련된 역사·위인이 37단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황과 결부시킨 전쟁 관련이 32단원으로, 전체 공통단원의 약 38%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의 주제들도 황국신민으로서의 마음가짐, 행동강령 등 황군양성을 위한 교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어린 아동들에게 필요한 인성, 교양 등은 극히 소수 단원에 불과했다.

또 공통단원을 장르별로 분류해 보면 시, 보고·관찰문, 설명·해설문의 문장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잠수함이나 대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비행기 정비 등 전쟁을 미화 교화하고 있다. 또 전기·위인문 형식을 빌려 일본의 천황, 무사, 학자, 화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인을 설정하여 일본인과 일본문화의 우수성을 시사하고, 생활문 형식을 이용해 일본의 문화행사를 조선인에게 이입시켜 일본인으로 동화하는 장치로, 천황의 신민이자 황군양성의 목적을 볼 수 있다.

단원 주제와 형식 분류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천황을 중심으로 일장기나 기미가요 등 일본의 상징들을 반복 기술함으로써, 일본인의 우수함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력을 신장하여 세계의 중심에서 강력한 일본제국의 이미지를 창출 압

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신화와 설화 등의 장치로 천황의 신격화를 도모하고, 천황에게 충성하다 죽은 무사들이 야스구니신사에 모여 영웅화하는 일화를 통해 궁극적 충성의 목표를 제시하여 왜곡된 사후세계를 암시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신사참배와 기미가요를 부르고 황실과 관련하여 극존칭을 사용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통해 신성불가침의 국체로써의 천황을 그려내고 있다.

더욱이 아동들에게 전쟁을 놀이로써 접목시키고, 잠수함을 비롯한 무기 분류 제조 조종 등에 대한 장황한 설명으로 전쟁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전쟁훈련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곳곳에서 삽화로 보충 심화시키고 있다.

1940년대 양국의 일본어 교과서인 ‘國語’는 국가에서 의도하는 천황의 신민이자 군인으로 양성시키는 교육을 일본아동뿐만 아니라 조선아동에게까지 끊임 없이 지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가라타니 코오진의(2002), 『근대 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p.169.
 강만길외(2004),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도서출판 선인.
 강창동(2002), 『한국의 교육 문화사』, 문음사.
 고마고메 다케시(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공제욱·정근식편(2006), 『식민지의 일상과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김영기(1994), 『교과목 편제를 통한 일제식민지 교육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김영우(1999), 『한국초등교육사』, 한국교육사학회.
 박진우(2004),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J&C.
 손인수(1998), 『한국 교육사 연구』, 문음사.
 와카쓰키 야스오著·김광식訳(1996), 『일본 군국주의를 벗긴다』, 화산문화, p.158.
 윤여탁(2006), 『국어교육 100년사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23~229.
 이계학외(2004), 『근대와 교육 사이의 파열음』, 아이필드, pp. 29~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2003), 『1930년대 예술문화운동』, 국학자료원, p.206.
 이콘스크(1996), 『『國語』という思想』, 岩波書店, pp.231~234.
 李淑子(1985), 『教科書に描かれた朝鮮と日本』, ほるぷ出版, pp.469~478.
 井上越·古田東朔(1984), 『国定教科書編集二十五年』, 武蔵野書院 p.285.

原田種雄·徳山正人(1988), 『戦前戦後の教科書比較』, 株式会社行政 p.53.

- ❖ 투고일 : 2011.06.30
- ❖ 심사일 : 2011.07.26
- ❖ 심사완료일 : 2011.07.28